

적인 면이 부여된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점들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중 많은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폭넓은 여성주의적 비판이 요구된다. 모든 여성적인 면을 남성적인 것에 종속시키는 이러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진술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신화를 계속 전승하고 유지시킨다. 이러한 반여성적인 이데올로기는 여성억압적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현실은 항상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양심을 탈레기 위해 오늘도 성차별적인 입장을 성서에서 찾아 예로 든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입장, 가치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이들이 성폭력을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성차별적 가치관이나 이해는 성폭력을 쉽게 지지할 수 있게 하거나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역할 이해를 갖는 남성들은 이러한 이해에 동조하지 않는 남성들보다 성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7)</sup> 그리고 전통적인 역할 이해를 가진 딸들은 아버지 같이 행동하는 남성이 힘을 약용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딸들은 남성의 권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순종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남성들을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서에 나타난 —반여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고는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유대교/기독교 전통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7) Ulrike Brockhaus/Maren Kohlschorn, *Sexuelle Gewalt gegen Mädchen und Jungen: Mythen, Fakten, Theorien*, Frankfurt 1993.

## 길고 어려운 여정 : 용서

울리케 비일 (Ulrike Ball)

### 한편의기도<sup>1)</sup>

서편 2 - 나를 폭행한 자를 벌하소서!

희망과 모든 축복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통으로 피로워하는 동안

나를 폭행한 자들은 자유를 돌아다닙니다.

나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의 처벌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나큰 어려움, 공포, 경악, 절망 속에서

1) 이 시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살아남은 한 여성이 세로 쓴 담원시편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시편의 번호는 그의 시편모음의 번호를 그대로 따랐다. 이 시편은 아래와 같은 책명에 발표되었다. James Leehan, *Defiant Hope. Spirituality for Survivors of Family Abuse*, Louisville/Kentucky 1993, 168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나는 다시 치유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어디에 가해자의 처벌이 있습니까? 어쩌하여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당신은 정의를 말씀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당신의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편은 성폭력 피해를 믿고 살아남은 한 여성이 쓴 시편모음 중 한 편이다. 이 여성은 구약성서의 시편을 새롭게 읽으면서 시편에 자신의 경험 이 반영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 시편은 이 여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분노를 표현하도록' 도와준다.<sup>2)</sup> 위의 탄원시 저자는 그가 겪는 고통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나를 강간하고 고통을 준 자에 대한 당신의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자는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 — 성폭력과 하나님, 복수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성,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긴 시간 — 을 성찰하기 위한 시작으로 이 탄원시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벌하고 진노해 달라고 우리는 간청할 수 있는가? 어떤 특별한 피해경험과 어떤 특별한 상황이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과 복수 그리고 용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성급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답을 위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즉 폭력에 대해 분명히 말함으로써 '입에 담을 수 없는 죄'<sup>3)</sup>에 대한 침묵을 깨뜨리는 질문, 폭력에 대해 차분히 그리고 긴 시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질문, 성폭력 피해 여성들

2) Lechan의 위의 책 주 2번과 169쪽을 비교하십시오.

3)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는 미국 개신교 여성학자 Marie L. Fortune의 저서 *Sexual Violence — The Unmentionable Sin, An Ethical and Pastoral Perspective*, New York 1988의 책명이다.

의 소리를 듣는 질문, 경험한 폭력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질문, 혹시라도 용서에 대한 대답이 찾아질 수도 있는 질문 등이 이어질 것이다.

###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분노,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다.<sup>4)</sup>

성폭력 경험의 후유증으로 인해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중 한 여성은 그들의 공동저서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친간간 피해자와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분노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착한' 희생자는 분노와 결별한다고 믿지만, 사실 거의 어떤 희생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의 결론은 — 저작성의 함의로 삭제했지만 — 우리가 갖는 분노이다. 이러한 체험을 한 우리들의 결론은 분명하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분노,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다."<sup>5)</sup> 이러한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의 귀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용서하고 망각하기를 성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체의 영혼을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짓밟힌 여성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보상도 없이 그들의 상처를 잊고, 용서하고, 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알아야 한다."<sup>6)</sup>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의무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새롭게 재고되어야 한다. 용서에 대

4) Truddi Chase, *Aufschrei, Bergisch-Gladbach* 1988, 341쪽.

5) 같은 쪽.

6) Anuna Gnanadason, *Die Zeit des Schweigens ist vorbei. Kirchen und Gewalt gegen Frauen, Luzern*, 1993, 109쪽.

한 요구는 용서에 대한 의무 내지 청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된다. 용서는 희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 오직 피해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며 선물인 것이다. 따라서 용서는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는 것이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할 필요는 없다.”<sup>7)</sup>

기독교 전통에서 복수에 대한 기도문들은 예배의식에서 흔히 배제되었다.<sup>8)</sup> 예를 들어 시편 6편을 내용으로 하는 독일 개신교 개편 찬송가의 마지막 부분인 10절 -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주께서 내 탄원을 들어 주셨다. 주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별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 의 내용이 빠져있다. 가해자를 탄원하는 내용은 무시되고 제외되거나 아니면 기도의 내용으로서 거부되고 문체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원기도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분노나 격분 그리고 복수에 대한 소원은 기독교의 기도에서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인가? 폭력의 피해자들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용서해야 한다’는 계명 때문에 고통의 힘에 짓눌려 침묵해야 하는가? 에리히 쟁거(Erich Zenger)는 기독교 인으로서 이러한 탄원기도를 거부하는 입장에 비판적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터더욱 성폭력 피해자로서”<sup>9)</sup>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탄원

7) *Gewalt gegen Frauen - theologische Aspekte (2). Eine Stellungnahme der Evangelischen Frauenarbeit in Deutschland e. V.* (epd-Dokumentation 17a/ 97), 6쪽.

8) Erich Zenger, *Ein Gott der Rache? Feindschaften verstehen (Biblische Bücher 1)*, Freiburg - Basel - Wien, 1994, 43쪽 이하를 비교하시오.

9) 같은 쪽과 13쪽.

기도는 정의와 도움을 갈구하는 고통의 상황을 어느 정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필자는 이 물음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면서 폭력에 대한 문헌들을 이 물음과 결부시켜 신중하게 다루고자 한다. 다루게 되는 그 첫 번째 문헌은 고대의 설화이다. 이것은 우회적인 설명으로 보일 수 있고, 긴 시간과 많은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치유과정이란 길고도 어려운 여정으로서 그 결과를 미리 규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규정해서도 안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로 다루게 될 성경본문은 시편 6편이다. 이 탄원시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여성이 하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복수 그리고 용서를 다루는 본 논문은 시편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도 시편으로 매듭지게 된다. 이 두 편의 시편내용은 복수와 침묵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다. 용서라는 말은 오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수로 하는 성폭력 경험 이야기

공간을 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은 필로멜레에 대한 고대설화는 다양한 형태로 전해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폭력, 강간, 권력, 침묵, 복수, 탄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필로멜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설화에 나오는 폭력의 수준이나 그것이 현대에서 갖는 현실성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설화는 폭력과 공포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10) 이 이야기의 요약은 Ovid, *Metamorphosen* 6의 423쪽 이하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인용된 부분은 Iselot Huchhausen의 *(Bibliothek der Antike)*, Berlin - Weimar, 1992에서 발췌하였다. 이의 다양한 다른 편들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오.

Thürmer, Art.: *Aetolor*, *Paulys Realenzyklopädie der c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 1, 467-474쪽, Geisau, Art.: *Philomela*, *Paulys Realenzyklopädie der c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 38, 2515-2520쪽.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제일 유명 한 오비드 메타모포시켄(Ovid Metamorphosen)편에서는 필로멜레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sup>13)</sup>

“아테네의 쿠왕인 판디온의 딸이며 필로멜레의 언니인 프로크네는 정략적인 이유로 트라키엔의 왕인 테로이스와 결혼하게 된다. 트라키엔의 왕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다. 결혼하고 얼마가 지난 후 프로크네는 자기 동생 이 보고 싶어 테로이스왕에게 아테네에 가서 동생 필로멜레를 자기에게 데려올 것을 청한다. 테로이스왕은 아테네로 가서 판디온왕을 설득한다. 테로이스왕은 필로멜레를 데려오는 중 으숙한 곳에서 필로멜레를 짐탈한다. 이러한 사실을 프로크네가 알게 되거나 또 소문이 널리 퍼질 것을 두려워하여, 테로이스는 필로멜레의 혀를 자르고 투옥시킨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짐탈한다. 테로이스는 프로크네에게 그의 동생이 죽었다고 속인다. 필로멜레는 병어리애다 만신창이가 되어 감금된 신세로 남는다. 필로멜레는 병어리가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배를 잘 때 사용하는 ‘복통의 언어’<sup>14)</sup>를 발견한다. 필로멜레는 자기가 경험한 고통을 표현하기 위하여 진홍색 실로 무늬를 놓은 후 그 옷을 하나를 통해 프로크네에게 전한다. 프로크네는 그의 동생이 이 옷을 통하여 전하려는 내용을 이해하고 침묵한다. 그런 후 그는 동생을 찾아 나서고 동생을 해방시킨다. 분노에 찬 프로크네는 자기 아들 이티스를 죽여 요리한 후, 이것을 테로이스의 식사로 제공한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자매는 이 사실을 알린다. 테로이스는 자매들을 죽이려고 뛰어 들지만, 신들이 이 자매들을 동정하여 프로크네는 앵무새로 그리고 필로멜레는 제비<sup>15)</sup>로 변하게 만들어 죽음을 면한다. 테로이스는 후르터 철새로 변하여 이 자매들을 쫓아다닌다.”

11) Sophokles는 Tereus(Frag. 595)에서 필로멜레의 ‘소리없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소포클레스의 이 은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Poetik, 1454b, 35에도 전해지고 있다.

12) 그리스 신화에서는 필로멜레가 제비로 그리고 프로크네가 앵무새로 변하지만, 로마의 신화에서는 그 반대로 자꾸 나온다(애를 들어 Hyg. fab 45, Geisau 위의 책, 주 10번과 2517쪽 참조). 이 신화의 로마편은 독일문학에 영향을 미쳐 필로멜레는 앵무새와 동일시되어 사랑을 호소하는 새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필로멜레의 호소는 전수되고 있지만 그가 당한 강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필로멜레는 강간을 당한 후 병어리로 남게 된다. 테로이스가 필로멜레의 소리를 빼앗아버린 것이다. ‘파수군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고, 돌담벽은 육중하게 서 있다. 입은 병어리가 되어 현실을 전할 수 없다.’<sup>13)</sup>

필로멜레는 침묵 속에 그리고 들로 짝 막힌 성벽에 갇혔다. 그러나 그는 그가 경험한 폭력을 알리는데 성공한다. 복통을 이용하여 필로멜레는 그의 ‘침묵의 언어’<sup>14)</sup>를 전한다. 그는 베짜는 ‘복통의 소리’<sup>15)</sup>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말한다. 필로멜레는 하얀 천에 진홍색 실로 그의 이야기를 수놓는다. 그리고 몸짓으로 이 옷을 그의 언니 프로크네에게 전할 것을 하녀에게 일린다. 하녀는 프로크네에게 이것을 전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전하는지 알지 못한다.” 프로크네는 이 천을 풀어 필로멜레가 수놓은 ‘탄원의 노래(carmen miserabile)’<sup>17)</sup>를 읽는다.<sup>16)</sup> 그는 이 천(Text)을 문자(Text)로 읽는다. 천은 프로크네에게 침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필로멜레는 “그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sup>18)</sup> 언어를 발굴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크네가 천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 천은 한 조각의 천에 머물렀을 것이고, 필로멜레의 고통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테로이스는 또한 그가 박탈한 언어를 무기 삼아 계속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크네는 복통의 언어를 읽을 수 있었다. “베들은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도구로 기억되고, 폭력은 베들이나 이의 일부분인 복통을 파괴시킨 것으로 이해

13) Ovid, Metamorphosen 6, 562-574쪽.

14) Achilleus Tatios, Leukippe und Kleitophon, 5, 5쪽.

15)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표현한다(Tereus, frag. 595).

16) Ovid, Metamorphosen 6, 579쪽.

17) Ovid, Metamorphosen 6, 582쪽.

18) Franz B merer는 P. Ovidius Naso, Metamorphosen. Kommentar, Heidelberg 1976, 158쪽에서 “carmen miserabile”이라는 용어가 앵무새의 울부짖음과 호소하는 소리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된다. 즉 폭력은 자메사이의 연결, 여성들의 표현의 능력, 공동체 형식, 의 사소통을 파괴한 것이다.”<sup>20)</sup> 북통은 침묵을 넘어 이렇게 자메사이를 연결시키고 있다. 필로멜레는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었고, 프로크네는 이 수놓은 천을 무언의 내용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자신 역시 무언으로 행동한다. 본문에 의하면 프로크네는 침묵한다고 표현되고 있다. “프로크네는 자기 동생의 끔찍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고통이 그의 입술을 닫아버린 것이다.”<sup>21)</sup> 그녀는 사실 자신의 고통과 경악을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한 것이다. 프로크네가 읽은 천의 내용은 우선 말문을 막히게 하는 ‘폭력의 본문’ (text of terror)<sup>22)</sup>이었다.

프로크네가 침묵을 깨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유일한 생각은 복수다. 필로멜레를 찾아 해방시킨 후 자기 동생이 병어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프로크네는 자기와 테로이스왕 사이에서 난 아들 이티스의 죽음을 애고한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강철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sup>23)</sup> 폭력에는 이에 대항하는 폭력이 따른다. 이티스는 실제 당하고 테로이스는 두 자매를 죽이려고 칼을 든다. 그러나 자매는 새로 변하여 도망가고, 테로이스 역시 “칼과 비슷한 부리를 가지고 머리는 무장한 것처럼 보이는”<sup>24)</sup> 새로 변하여 이들을 쫓아다닌다. 설화는 이렇게 끝난다. 그러

나 여성들의 피난은 영원히 끝나지 않으며 테로이스도 이 여성들을 따라 잡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새로 변한다는 내용은 폭력과 복수의 결과가 계속되면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해내려 오는 그림은 앵무새는 도망다니고 테로이스는 앵무새를 쫓아다닌다는 끔찍스런 모습이다.”<sup>25)</sup>

오버드그가 서술하는 필로멜레와 프로크네의 이야기에서는 여성들이 침묵을 깨는 수단이 복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프로크네는 자기 남편 테로이스가 자신의 동생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과 남편과의 끈을 단절하고 그의 동생 필로멜레와 연대한다. 그러나 두 여성들이 행하는 폭력으로 인해 테로이스가 필로멜레를 강간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 설화의 다른 편에서도 이티스를 죽인 사실을 부각시켜 필로멜레가 당한 강간은 무시되고 있다. “오, 여성들이여! 그대들은 못할 짓이 없구나!”<sup>26)</sup> 여기에서 여성들은 테로이스보다 더 폭력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폭력을 알리고 소외와 침묵에서 해방하기 위한 여성들의 대기는 너무 큰 것이다. 성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 자신이 당한 폭력보다 더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7)</sup> 강간을 당하고 침묵하기를 강요받은 여성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면서 재등장하는 경우가 여성들은 괴물 같은 사건의 주역으로 표현되고 또 그렇게 기억된다. 이렇게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라는 첫 번째 요구에 이어 두 번째 침묵이 따르고, 중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강간 사실은 전면에서 배경으로 밀려난다.

24) Ovid, *Metamorphosen* 6, 673쪽.

25) Achilleus Tatios, *Leukippe und Kleitophon*, V 5, 8쪽 이후와 Klindienst, Joplin,의 위의 책 48쪽 이하와 주 20편을 참조하십시오.

26) Achilleus Tatios, *Leukippe und Kleitophon*, 17, 7쪽.

27) Higgins/Silver, Introduction, in: L. A. Higgins/B. R. Silver, *Rape and Representation*, New York, 1991, 4쪽을 비교하십시오.

19) Margarete Divjak, *Philoemeles Töchter*, in: Edith Specht(Hg.), *Frauenreichum. Die Frau als Wirtschaftsfaktor im Altertum*, Wien 1994, 291-301, 특히 301쪽을 참조하십시오.

20) Patricia Klindienst Joplin, *The voice of the Shuttle is Ours*, in: L.A. Higgins/B. R. Silver, *Rape and Representation*, New York 1991, 35-64, 특히 43쪽을 참조하십시오.

21) Ovid *Metamorphosen* 6, 582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22)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Literary Feminist Reading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1984.

23) Ovid, *Metamorphosen* 6, 611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고대시대에 계속 논란되었고, 그리하여 독자들은 하여금 이 폭력의 끔찍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프로크네가 침묵을 깨뜨릴 길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필로멜레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필로멜레는 날마다 테로이스를 만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될 수 있었을까? 필로멜레는 테로이스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 테로이스는 필로멜레의 통전성과 언어를 빼앗은 것만이 아니라, 필로멜레의 행방을 찾지 못하게 죽이려고 계획을 한 자다. “고통스러운 죄 하면서 프로크네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꾸며대는”<sup>28)</sup> 테로이스를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필로멜레가 북통의 길고 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침묵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북통의 더딘 움직임은 침묵을 깨고 일어나는 첫 발걸음이다. 이 무언의 언어는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알려져야 한다. 북통의 언어는 폭력에 대한 경험을 말해주고 이를 널리 알린다. 필로멜레의 입장에서 이 저항은 자신을 침묵 속에 묶어두는 그 힘에 대한 해양적인 복수로 이해될 수 있다. “폭력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복수이다.”<sup>29)</sup>

### 하나님이여, 나를 해방하소서

히브리 성경에는 기습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울부짖는 탄원기도가 전수되고 있다. 시편 6편도 이런 탄원기도의 하나이다(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래를 보시오).<sup>30)</sup> 이 시편은 말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삶의 상황으로 내몰린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되어 준다. 나아가 이 시편은 침묵, 폭력, 공포에 대한 저항의 본문이다. 시편 6편에는 기도자의 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가 없다. 따라서 이 탄원시는 성폭

28) Ovid, *Metamorphosen* 6, 598쪽.

29) *Klindienst, Joplin*, 위의 책 54쪽, 주 20번.

력을 당한 여성의 탄원시로 읽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여성이 말하는 고뇌는 범죄학적,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시편의 언어는 사진을 짚은 것처럼 현실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의면적인 고뇌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이 시편은 일정한 은유와 언어구조를 가지고 말 못하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식소통과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탄원하는 여성은 삶의 활력과 꿈을 파괴하는 고통을 경험했고, 이 고통은 그의 뼈 속까지 사무치고 있다. 고통의 경험은 이 여성을 휩싸고 있으며 이 여성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 고통이란 고통을 모두 겪고 있다. 시편 6편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고통과의 대결을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적으로는 공포가 종결되는 어떤 전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포의 종결이란 기해자가 겁에 질리는 것이다.

리엔스트라(Marchienne Vroon Rienstra)는 여성들이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비 동우리’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다.<sup>31)</sup> 그는 히브리 성경을 바탕으로 시편을 의역하고 있으며 학문적인 논쟁보다는 시편기자가 보여 주는 예배의식과 영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의 목적은 세계 곳곳에서 성서를 읽는 여성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로서 시편을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리엔스트라는 여성의 생애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편에 일정한 상황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

30) 시편 6편의 자세한 해석에 대해서는 Ulrike Bail, *Gegen das Schweigen klagen. Eine intertextuelle Studie zu den Klagepsalmen Ps 6 und Ps 55 und der Erzählung von der Vergewaltigung Tamars*, Gütersloh 1998을 참조하시오.

31) Marchienne Vroon Rienstra, *Swallow's Nest. A Feminine Reading of the Psalms*, Grand Rapids/Michigan 1992. 이 책은 기도형태로 되어 있으며, 4주 동안 아침기도, 점심기도, 저녁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시편 외에도 성경해석과 전수된 기도문에 대한 저서도 있다.

황은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정치사회적 배경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경험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는 시편의 제목을 새롭게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편을 다윗의 생애와 연결시켜 제목을 붙였던 옛날 방법과 다를 바가 없다.

시편의 제목은 시편본문에 따라 이차적으로 붙여진 것이다. 이 제목들은 남성들(다윗, 고라의 자손, 아삽, 솔로몬, 에스라 사람 에담, 모세 등)을 가장 저자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붙여진 시편제목은 시편을 남성 의 목소리로 구체화시키고, 구약성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남성들의 생애와 연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 제목은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설화를 다윗의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다(사무엘하 12장 참조). 시적인 시편 본문과 설화적이고 전기적인 배경을 시편제목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을 여성신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시편제목을 통해 여러 성서내용을 연결하는 연결그물은 확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리엔스트라의 처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5편의 시편제목을 찾아 볼 수 있다. 시편 11편 35절(성폭력), 4편 70절(성희롱), 6편(성폭력)<sup>32)</sup> 시편 6편의 제목은 '이 기도자는 성폭력 당한 여성일 수 있다'<sup>33)</sup>이다. 시편 6편의 제목처럼 모든 제목은 가상적으로 표현된다. 여성의 특별한 상황을 제목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성들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시편 6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님,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32) 같은 쪽과 28, 90-92, 30, 204, 44쪽.

33) 같은 쪽과 44쪽.

2.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verdorren/마썬 마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리니,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3. 내 마음은 견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Kehle=목, 인후)

주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4. 들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Kehle=목, 인후)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5.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울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6.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jede ganze nacht=매일 밤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7.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을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쌀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역자: 시편 6편은 표준 새번역에서 옮겼다. 본문에는 시편 6편이 11절까지 나뉘어 있으나 한국 성경에는 10절로 되어 있어 역자는 한국 성경의 절수에 따랐다. 이 책에서 는 독일어를 중심으로 용어들이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성경의 번역과 동일 하지 않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9. 주께서 내 탄원을 들어 주셨다.  
주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
10.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위의 시편에서 여성기도자는 부분적으로 상반되는 상징으로 고통과 공포의 총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반된 상징이 모든 것을 에워싸고 관통하는 동사를 나타내 준다. 2절에서는 'verdorren' (바싹 마르다, 말라죽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삶을 위협하는 때마름과 때마름의 결과로서 죽음을 부르는 사막을 연상시키고 있다. 또한 6절에서는 물의 상징을 통해 물에 쓸려나가거나 물이 넘쳐 밀려나는 무기력, 죽어져 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때마름 사막과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홍수는 공포의 총체성을 상징하고, '밤이 세도록'이라는 표현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을 나타내 주고 있다(6절).

2절과 3절에서 여성기도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통전성이 파괴되고 있음을 말한다. 무과 뼈가 공포에 질려 굳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뼈와 목'은 삶의 역동성과 안전성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뼈는 지속성의 상징으로서 삶의 안전함을 말하고, 목의 상징은 삶에 필수적인 육구를 나타내는 언어이다. 이 두 상징적 단어는 회자의 정체성과 통전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3절의 'nätsch' (뭉)이란 용어는 흔히 영혼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유럽의 철학 전통에 따라 육체에 반하는 '불사의 영혼'으로 이해된다. 'nätsch'의 기본 의미는 목(숨)으로서 육체적인 차원의 의미의

다. 이 단어는 음식을 섭취, 산소흡입 그리고 의식소통의 뜻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단어를 삶의 역동성, 삶의 힘이나 삶의 활력의 의미로서 생기(生氣)로 번역하는 것이 —많은 경우—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뼈와 목이라는 단어는 'bahal'이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다. bahal은 놀라다, 공포 때문에 경직되다, 몸이 굳어 마비되도록 놀라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삶의 안전성과 삶의 역동성이 함께 연결될 때 성공적인 삶은 가능하다. 이를 상징하는 뼈와 목을 2절과 3절에서 따로 분리함으로써, 삶의 안전성과 역동성의 연결은 깨어져 분리되고 있다. 여성기도자의 삶의 역동성과 안전성은 상호의 관계를 잃고 분해되고 있으며 동시에 온 몸이 마비되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2절 후반절에 일인칭 명사(ami/나) 나'라고 칭하는 여성기도자는 그 겪는 고통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그의 역동성과 안전성의 통일은 그 중심에서부터 부서지고 있다. 즉 나 자신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다. 분해된다는 뜻은 감정이 분리되고 또한 육체에 대한 감정을 자신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분해의 과정은 절망적인 상황, 곧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나 자신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정신적인 곤경의 상황에 한계를 짓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살아남기 위한 시도이며, "분해되고 있는 자신을 다시 정립하려는 절망적인 노력"<sup>35)</sup>인 것이다. 여성기도자는 어떤 삶의 의욕도 없고 전혀 움직임 수도 없는 상황(경직되다/바싹 마르다)에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신적/육체적 통전성의 상실은 더 심화되고, 이에 따라 안전성과 역동성의 관계 역시 파괴되어 간다. 이러한 상황은 나아가 죽음의 세계와 접근

34) Bail, 위의 책, 주 30번, 116쪽의 주 11과 비교하십시오.

35) Ursula Wirtz, Seelenmord, Inzest und Therapie, Stuttgart 1992, 147쪽과 Harald Feldmann, Vergewaltigung und ihre Folgen, Stuttgart 1992, 52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하고 있다(5절). 여성기도자는 자신을 외부세계의 가장 인쪽(침상)에 숨기고 있으나, 이 장소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스울)을 향해 휩쓸리고 있다(5절). 삶과 죽음의 세계를 오가며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죽음의 방에 있다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환경은 어떤 형태일지라도 죽음으로 경험된다. 기쁨, 흥수, 어두움에 대한 상징은 공포와 고통의 장소로서 그가 삶을 잃게 될 죽음의 경계에 처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폭력행위에 대한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여성기도자의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도자는 8절 하반절에 와서야 처음으로 기해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난의 원인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확인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이미 계획되었지만- 이 부분에 와서 나타나는 새로운 진상변화와 관계된다.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점은 이미 암시되었듯이, 시편은 시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sup>36)</sup> 돕는다는 데 있다. 여성기도자가 경험하고 있는 공포는 이 여성 자신의 삶의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유일하게 열려 있는 그의 눈마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 무친 율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의 등쌀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7절)”. ‘나’ 라고 지칭하는 기도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안에 서부터 밖을 향해 눈길을 보내고, 안으로 향하도록 강요당하지만 다시 한 번 밖을 향해 눈길을 보낸다. 그리고 이 눈길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멈춘다.

눈물로 범벅되어 흐려지는 기도자의 눈은 고난의 원흉인 대적자를 향해 움직이고, 고난의 원인이 대적자에게 있음을 알아차린다. 공간을 인식하는 눈은 고난의 원인이 대적자가 자기 앞에 있음을 발견한다. 여성기도자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볼 수 있고 알아차릴 때, 이 여성은 이 문체에 대

36) Erich Zenger, Was wird anders bei kanonischer Psalmenauslegung?, in: F. V. Reiterer(Hg.), Ein Gott - Eine Offenbarung. Beiträge zur biblischen Exegese (FS Nöcker Fügister), Würzburg 1991, 397-413과 특히 410쪽을 참조하십시오.

해 말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악한 짓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 외침을 시작으로 피해 여성은 기해자에게 빼앗겼던 공간을 되찾고, 기해자와 자신 사이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다.

오직 고난의 원인 제공자를 인식하고 이를 명명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을 옮기고 소외시켰던 공간에서 멀쳐 나올 수 있다.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 이것은 언어를 통해 저항하고 더 이상 무기력하게 어두운 고통과 공포의 공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재의 기해자를 응시하는 눈은 고난받고 무기력한 자신을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행위이며, 나아가 기해자를 멀리 내쫓아 자기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행위의 시작이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별별 때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10절)’.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약속-인간을 통해 폭력이 종식된다는 희망과 약속-을 노베르트 로오핀크(Nobert Lohfink)는 “기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역할전위”<sup>37)</sup>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역할의 전위를 통해 피해자를 물러싸고 있던 폭력은 그치지만, 폭력자체는 세상에 남는다. 그렇다면 원수를 저주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저주의 원동력은 복수이기 때문에 폭력자체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인가? 폭력이 폭력을 낳고, 또 이에 대한 폭력은 계속된다는 것인가?

10절에서 여성기도자는 기해자도 자신이 경험했던 환경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가 중요하게 보는 점은 10절에 나오는 다른 동사를, abwenden(돌아서다, 물러가다), zuschanden werden(수치를 당하다), 혹은 sich schämen(부끄러워하다)이다. 돌아서다, 물러가다(abwenden)라는 동사의 기본의미는 무엇을 바꾸기 위해 돌아선다는 뜻이

37) Norbert Lohfink, Was wird anders bei kanonischer Schriftauslegung? Beobachtungen am Beispiel von Ps 6, in: JBTh 3 (1988), 29-53, 42쪽.

다. 이 단어에는 어떤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향전환을 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이다. 이 단어들은 가해자는 돌아서서, 떠나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기도자에게 빼앗겼던 공간에서 떠나감으로써 빼앗겼던 공간을 기도자 여성에게 다시 돌려주고 가해자 자신과 여성기도자 사이의 공간을 넓히려는 뜻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가해자의 방향전환은 사용된 동사의 전복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우선 '돌아서다' (sub/abwenden)라는 동사를 뒤집으면 '수치를 당하다'라는 동사(bos/zuschanden werden)로 곧바로 연결된다. 연이어 '황급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몰라가다'라는 동사가 의도하는 뜻을 강조한다. 언어의 전복이 적대자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방향전환은 공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감성적인 회개에 대한 요구이다.

8절~10절은 적대자에 대해 언급한 후 '주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다. 만약 적대자에 대한 언급 -공간적, 시간적인 방향전환-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을 연계시키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해자의 방향전환이 '회상의 힘에 의한 윤리(azammennische Ethik)'<sup>38)</sup>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회상의 힘이란 인간행위에 대한 과거의 규범을 기억하고 숙고하는 힘을 의미한다. "기억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한다. 기억은 아물지 않아야 할 상처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며, 망각 속에서 끊지 않도록 하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 덮어 버리지 못하도록 한다. 과거사라고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sup>39)</sup> 히브리성서에 나타난 기억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관점은 본질적으로 방향전환과 행위에 의한 결과를 직접 경험<sup>40)</sup>하는

38) 이 용어는 Boschert-Kimmig가 Elie Wiesel의 "회상의 힘에 의한 윤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Reinhold Boschert-Kimmig, Handeln aus der Kraft der Erinnerung, in: Elie Wiesel, *Den Freitagen feiern*, Freiburg-Basel-Wien 1991, 150쪽과 비교하시오.

39) 같은 쪽과 150쪽 이하를 참조하시오.

것을 말한다. 여성기도자가 10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과 고난(2절과 3절)을 가해자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피해자에게 준 영향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자신이 한 행위와 결과를 직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바람은 모순된 내용처럼 보인다. 여성기도자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가 몸이 경직되도록 고난받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모순된 것 같이 보이는 여성기도자의 태도는 가해자의 행위와 행위동력을 박탈하고 동시에 가해자를 공간에서 쫓아냄으로써 자신의 행동공간을 피 찾으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경직되다'와 '돌아서다'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피해자의 요구는 bos라는 동사와 연계되어 있고, 이 동사는 '수치를 당하다', '창피 당하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sup>41)</sup> 이 동사는 주관적 -경험적 차원에서 는 죄책감, 회개의 의미를 가지며 객관적 -사건적 차원에서는 책임과 실책을 폭로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수치/망신은 항상 공개적인 수치를 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세간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기"<sup>42)</sup> 때문이다. 시편 6편 10절에 등장하는 동사의 양면적인 뜻은 -기도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한 면

40) Christof Hardmeier, Die Erinnerung an die Knechtschaft in Ägypten. Sozialanthropologische Aspekte des Externens in der hebräischen Bibel, in: Frank Cüsemann u.a. (Hg.), *Was ist der Mensch...? Beiträge zu einer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1992, 133-152, 특히 151쪽을 참조하시오.

41) Martin A. Klopfenstein, *Scham und Schande nach dem Alten Testament. Eine begriff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 den hebräischen Wurzeln bos und klan und hpr* (AThANT 62), Zürich 1972, 206쪽.

42) 같은 쪽과 209쪽.

만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가해자가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한 고통을 불의한 행위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법적-공적인 귀결을 요구하는 의미이다.<sup>43)</sup>

프랑크 크뤼세만(Frank Crüsemann)에 따르면 히브리성서에 나타나는 성폭력에 대한 법적 판결은 분명하다.<sup>44)</sup>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점은 먼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갈등은 공개적인 법정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성서적으로는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 둘 수 없는 것이다. 크뤼세만은 신명기 22장 26절에 나타난 법규정 (“... 육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마친가지이다.”) — 은 성서시대의 생활양태와는 상관없이 규정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간에 대한 규정이다. “법적으로 강간은 살인죄와 동일시되었고, 이에 따라 처벌되었다. 이 규정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폭력적인 살인이라는 표현 대신 실제 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사용된 동사(*mazach*)를 사용함으로써 살인행위를 *nāšāsh*라는 명사와 연계시키는 표현이다. 이 *nāšāsh*라는 단어는 목/인후라는 뜻으로서, 목숨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성서적 언어에서는 영혼이라는 뜻이다. (...) 살인과 강간의 비교점은 *nāšāsh*, 즉 목숨/영혼에 대한 훼손인 것이다. 강간의 경우 이러한 훼손이 지속되기 때문에, 강간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sup>45)</sup>

43) 같은 쪽과 206쪽.

44) Frank Crüsemann, *Das Alte Testament – Wurzel von Gewalt gegen Frauen oder Chance ihrer Überwindung*, in: *Gewalt gegen Frauen – theologische Aspekte*(2), *Eine Stellungnahme der Evangelischen Frauenarbeit in Deutschland e. V. (epd – Dokumentation 17a/97)*, 8-12, 특히 10쪽을 참조하시오.

45) 같은 쪽.

위에서 살펴본듯이 10절에서 37까지 통사는 돌아섬 — 회개 — 수치 의 과정이 연결되고 이 일련의 과정은 법적/재판의 결과와 가해자의 죄책감 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폭력이 종결 된다.

가해자가 수치를 당하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소원은 가해자가 휘두르는 불의의 권력이 힘을 잃고, 그의 공격적 행동이 마침내 저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수치와 창피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서 일그러진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이다. 일그러진 인간관계의 내용은 주로 위계질서에 의한 차이와 불평등한 힘의 균형에 의한 것이다. 시편 에서 기도지는 하나님에게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복수하고, 폭력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수에 대한 소망은 베츠헬 (Lyn M. Bechtel)의 설명에 따르면 “회생자가 가해자와 역할을 바꿔 자신의 정당함을 다시 회복하려는”<sup>46)</sup> 뜻이다. 10절에도 표현되고 있듯이, 이러한 피해자의 소망은 폭력으로 인해 거의 파괴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소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거는 시편은 바로 “자아실현의 총보”<sup>47)</sup> 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석을 위해서는 본문배경이 참고되어야 한다. “이 시편이 회생자의 입 장에서는 정당한 내용이 되지만, 폭력자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는 자체가 없다면— 불경스런 유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sup>48)</sup> 시편 6편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10절의 내용은 가해자의 파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회개하고 폭력을 더 이상 휘두르지 않으며, 공의가

46) Lyn M. Bechtel, *Shame as a Sanction of Social Control in biblical Israel: Judicial, Political and Social Saming*, in: *JOT 49* (1991), 47-76, 특히 76쪽을 참조하시오.

47) Zenger, 위의 책, 주 8번, 150쪽. 여지주: 총보는 합장이나 합주에서 각 부분의 악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로 종합한 악보로서 주로 지휘자용으로 쓰인다.

48) 같은 쪽과 162쪽.

세워지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여성기도지는 “벌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이 아닌, 잘못된 범죄서를 회부시키고 범질서를 변호하는 하나님”<sup>49)</sup>께 호 소하고 있다. “불의를 제거하는 하나님”<sup>50)</sup>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복수 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을 믿고 자신을 맡기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생자의 편에 서서 부당한 가해자로부터 회생자들의 삶의 권 리를 찾아 주도록”<sup>51)</sup> 요구하고 있다. 여성기도지는 가해자만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와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돌아와 주 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 하여 주십시오” (4절)<sup>52)</sup>

#### “결정적인 것은 누가 말하는 가이다”<sup>53)</sup>

여성기도자가 경험하는 끝없는 공포나 고난에 비하면 가해자에 대한 폭 력이 공포로 매듭 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통진성을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해야하는 동시에 용서와 화해에 대한 절 대적 명령을 수용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먼저—설상 공포의 종식을 의미 해도—폭력을 저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피해당사자가 말하

49) 같은 쪽과 140쪽, Jürgen Ebach, *Der Gott des Alten Testaments — ein Gott der Rache?*, in: ders., *Biblische Erinnerungen, Theologische Reden zur Zeit*, Bochum 1993, 81, 91쪽과 특히 87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50) Ebach, 위의 책, 주 49번, 87쪽.

51) Rainer Albertz, “Gott der Rache, erscheine!”, *Predigt über Psalm 94, 1-23*, in: ders., *Zorn über das Unrecht. Vom Glauben, der verändertem will*, Neukirchen-Vluyn 1996, 130-144, 특히 140쪽을 참조하십시오.

52) 알비문학 (bBer 7b)에는 시편 46장 9절에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니라, 이름을 다시 주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53) Higgins/Silver, 위의 책, 1쪽과 주 27번.

는 것과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폭력이 사라지기를 염원하는 내용은 문학적적으로 가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화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이다.”<sup>54)</sup>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향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말의 표현으로 미치지 힘든 공간이요, 무시되고 외면되는 사회의 주변공간이며, 성경본문도 미치지 어려운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저항, 호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외침으로써 가해자가 없애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sup>55)</sup>

#### 용서의 말을 시작하기

복수와 침묵 사이에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 복수는 항상 어떤 행위와 이에 따르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극단적인 행위이다. 반면에 용서는 관용하고 망각해버림으로써 자칫하면 이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물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노와 복수는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감정이다. 그렇기에 구약성서의 언어에서는 “복수에 대한 소원은 어떠한 생각의 표현이라고 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복수자로 이해하고 호소한다는 뜻은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불의를 제거한다고 믿는 것이다. (...) 불의를 단절시키고 권리와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로 복수를 이해하는 것이다.”<sup>56)</sup> 시편에 나오는 틴원시는 하나님이 폭력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복수해 주기를 애원하고 있다. 틴원시의 다음과 같은 표현 “원수 같은

54) Higgins/Silver, 위의 책, 1쪽과 Zenger 위의 책, 162쪽 그리고 주 8번과 비교하십시오.

55) Zenger 위의 책, 162쪽과 주 8번, 그리고 Albertz 위의 책, 139쪽, 주 51번을 참조하십시오.

56) Ebach, 위의 책, 90쪽과 주 49번.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낡는다.(신명기 32:35)에는 기도자의 진지함과 절박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성서구절을 위협으로 느끼고 폭력 현실의 변화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이 탄원시의 진지함과 절박성을 무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주된 관심이지, 평화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폭력행위를 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지향한다는 형식적인 요구는 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증명한다. 외치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화에 대한 요구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또한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아파하지 못하거나 아파하러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무기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는 (...) 실질적인 고난과 공포가 더 이상 표현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sup>57</sup> 자신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비록 복수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용서에 대해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과정 - 경우에 따라 끝도 없는 과정 - 이다. 용서의 마음자세는 성폭력 피해자와 폭력사실이 알려지고, 가해자의 변호와 회개가 전제될 때 주어질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상처와 대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이 과정은 부통이 천을 짜기 위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천이 만들어질 것인지, 어떤 언어로 표현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생의 내용이 이 천에 담겨지게 될 것인지는 한 줄씩 한 줄씩 짜여진 천이 완성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와 같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없던 일로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폭력에 대한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57) Ingo Baldermann, *Einführung in die Bibel*, Göttingen 1988, 90쪽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 한편의 기도

용서

자비의 하나님,

당신의 용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까요?

그 이기적이고 물음치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인정할까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결과를 들으려고 할까요?

자비의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갈 힘을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결코 잊지 않게 주소서.

오직 한 걸음씩만 매일께 도와주소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해방시키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주소서.

58) 이 시는 Catharin J. Foote의 기도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Catharin J. Foote, dies., *Survivor Prayers. Talking with God about Childhood Sexual Abuse*, Louisville/Kentucky 1994, 82 쪽을 참조하십시오.